

## ▼ 1.1.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편집]

체크 소액신용결제 서비스<sup>[2]</sup>를 지원하는 체크카드

체크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란 체크카드에 소액의 신용한도(최대 30만원)를 부여해서 체크카드 사용불능시 신용거래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2012년 금융당국이 과열된 카드영업에 제동을 걸기위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해서 은행 잔고가 부족하거나, 은행 전산과 일시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잔고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신용한도금으로 승인을 해준다.



즉, 예금잔액 부족, 은행 전산망의 장애 혹은 중지<sup>[3]</sup>에 영향을 받는 체크카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출금하는데,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 거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은행서버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똑같이 체크카드는 승인 거부 메시지가 출력된다. 잔고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은행과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잠시 신용카드의 성격의 가지며 신용카드사망과 연결된 다음 부여된 신용한도 내에서 승인을 처리하는 구조로 동작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자가 따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이브리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엄연한 신용공여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신용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이용이 허락된다.

결제할 때마다 바로 지불대금을 출금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액조회를 위해서 은행전산망이 필요한 체크카드와는 달리 누적된 사용금액을 결제일마다 챙겨가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어느 때라도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사용까지 가능하다면 시차와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까지나 체크카드이며 신용한도는 최대 30만원에 불과한데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할부<sup>[5]</sup>나 해외이용<sup>[6]</sup>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잔액 보충을 잊었거나 은행전산망이 죽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디까지나 비상용 한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